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

Market Issue

이란 전쟁 시나리오와 대응 전략

Investment Strategy
2026.3.3

[주식전략]

유명간
myounggan.yoo@miraeasset.com

김성근
sungkeun.kim@miraeasset.com

[채권전략]

민지희
jihee.min.a@miraeasset.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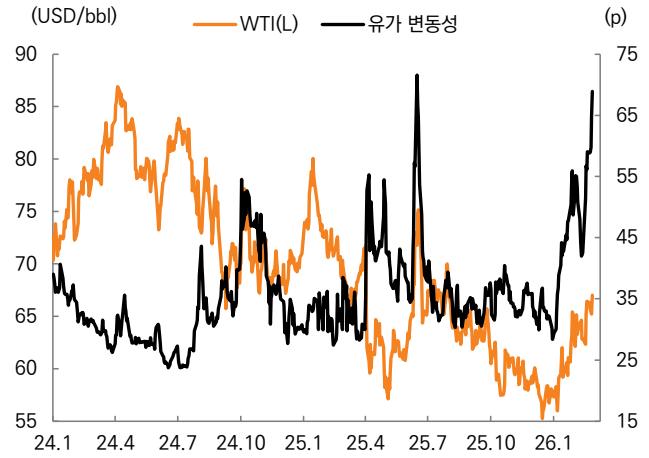
- 이란 전쟁으로 인한 리스크는 호르무즈 해협 물류에 대한 차질. 금융 시장 변동성 고조
- 베이스 시나리오는 4주내 마무리. 가장 위협적인 시나리오는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한 차단. 미국이 중간 선거 영향으로 전쟁의 장기화를 원하지 않음
- 다만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인플레 상승 우려와 안전자산 선호 심리 확대
- (매크로) 단기 FX, 및 금리 변동성 장세 불가피.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은 제한적
- (한국 증시) 이란 리스크에 따른 단기 조정은 밸류에이션 부담 해소의 기회. 기업 실적 개선, 증시 친화적 정책 기조, 머니무브 등 구조적 리레이팅 흐름은 불변. 단기 조정 시 유가 상승 수혜 업종 비중 확대와 반도체 등 기존 선호 업종은 매수 기회로 활용

이란 전쟁 발발: 위협 받는 호르무즈 해협 물류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에 나서면서 양 진영간 갈등이 개시됐다. 2월부터 진행되던 이란과의 협상에서 뚜렷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결과다. 갈등 직전 제네바에서의 협상에서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와 이란의 미사일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이란이 끝까지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합의가 불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정한 데드라인인 3월 6일 전에 공습을 개시하기로 결정한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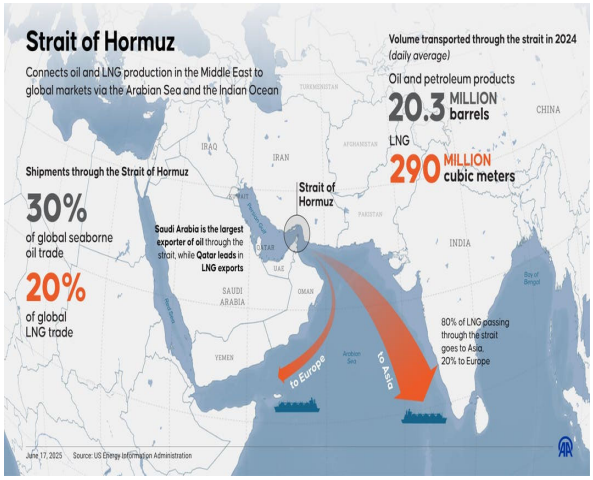
우선 이란과의 갈등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물류 이동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했다. 이란 혁명군(IRGC)이 해협의 통행은 안전하지 않다고 경고했고, 해협 건너편에 있는 카타르, UAE, 바레인의 주요 인프라 시설과 미군 기지도 이란의 공격을 받은 상황이다. 독일의 Hapag-Lloyd를 비롯한 일부 해운사들은 이미 호르무즈 해협 지역을 피하라는 지침을 내렸고, 전일에는 최소 3척의 유조선이 공격 받기도 했다.

그림 1. 호르무즈 해협 공격으로 높아진 유가 변동성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호르무즈 해협의 중요성



자료: US Energy Department,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호르무즈 해협내 물류 차질의 기간이 관건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지리적 위치상 UAE, 카타르 등 걸프국과 사우디의 원유 수출 중 상당 비중이 거쳐가 글로벌 경제에 매우 중요한 무역 통로이기 때문이다. 24년 기준으로 약 2천만 b/d가 통과했는데, 이는 글로벌 전체 수요의 30% 수준이다. 글로벌 LNG 공급 중 20%도 이 해협을 통과한다.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파이프라인은 있지만 캐파는 3.5백만 배럴 규모에 불과하다.

금융시장 반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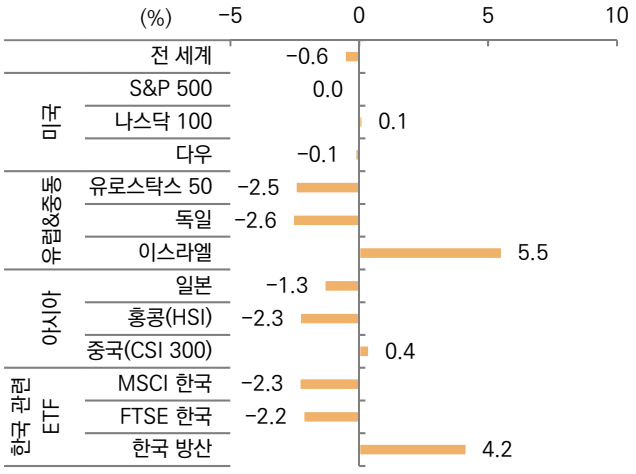
주요 지수: 월요일 아시아, 유럽권 주요 지수는 대체로 하락했으며, 미국 주요 지수는 하락 출발 후 소폭 상승 마감했다. 일본 니케이 225 지수는 -1.5% 하락하며 시작 후 -2.7%까지 낙폭을 키웠으나, -1.4% 하락으로 마감했다. 홍콩 항셍 지수(HSI), 범유럽 지수인 유로스탁스 50 지수는 각각 -2.3%, -2.5% 하락했다. 반면 미국에 상장된 이스라엘 ETF(EIS US)는 +5.6% 상승했다.

미국 주요 지수도 하락 출발했다. 그러나 엔비디아(NVDA US, +3%), 마이크로소프트(MSFT US, +1.5%) 등 대형 기술주 및 에너지 섹터, 방위 산업 등이 상승하며 S&P 500 지수는 +0.04%, 나스닥 100 지수는 +0.13% 상승 마감했다. 소형주 지수인 러셀 2000은 +0.9% 상승했다. 미국에 상장된 MSCI 한국 ETF(EWY US), FTSE 한국 ETF(FLKR US)는 각각 -2.3%, -2.2% 하락했다.

글로벌 섹터/산업 내에서는 방위 산업 및 에너지가 강세를 보였다. 방위 산업 관련 글로벌 방위 산업 ETF(SHLD US), 미국 방위 산업 ETF(ITA US)는 각각 +3%, +2.8% 상승했으며, 미국에 상장된 한국 방위 산업 ETF(KDEF US)는 +4.2% 상승했다. 미국 섹터 ETF 내에서는 에너지 섹터(XLE US, +2%)가 강세를 보였으며, 방위 산업 상승 영향으로 산업재 섹터(XLI US, +1%)도 상승했다. 반면 필수소비 섹터(XLP US, -1.4%)는 약세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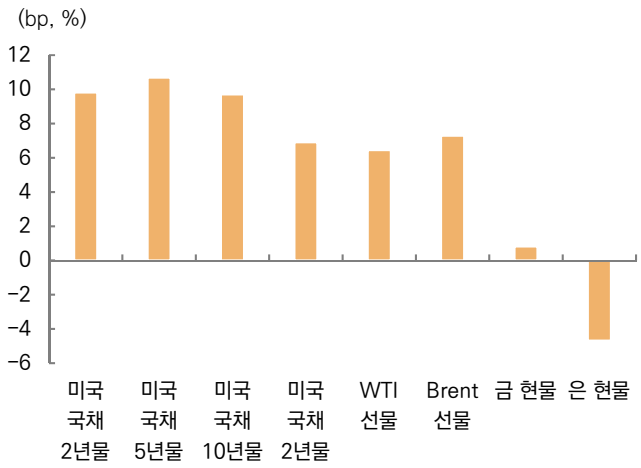
채권/원자재: 미국 국채 2년물, 10년물 금리는 3.4752%, 4.0345%로 각각 +10.02bp, +9.7bp 상승했다. 원자재 내에서는 원유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다. WTI 원유 선물은 +6.4%, Brent유 선물은 +7.8% 상승했다. 귀금속 내에서는 금(Gold)이 +0.9% 상승한 반면, 은(Silver)은 -4.6% 하락했다.

그림 3. 글로벌 주요 지수, 한국 관련 ETF 등락률



주: 한국 관련 ETF는 MSCI 한국(EWY US), FTSE 한국(FLKR US), 한국 방산(KDEF US)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4. 미국 국채 금리 변동(bp) 및 주요 원자재 등락률(%)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이란 전쟁 시나리오 점검

시나리오 점검: 전쟁의 장기화가 리스크

단기 시나리오: 과거 분쟁처럼 변동성 완화되면서 주식 시장 회복

이번 이란 이슈가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의 강도는 분쟁의 지속 기한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불확실성도 길어질수록 주식 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미국 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깊어질 수 있다. 기본적으로 4주는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작전은 미국의 목표를 달성할때까지 이어질 것이고, 약 4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표 1. 미국,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관련 금융시장 시나리오 점검

시나리오	전개 방향	주식	금리	달러환율	경기 (인플레 등)
4주 이내 종결	- 현 정권 인사들과의 합의에 도달 - 정권 교체로 인해 친미 정권이 수립	- 초기 변동성 국면 경험 후 빠른 회복	- 인플레 경계심에 금리 점진적 상승	- 달러 환율 정상화	- 미국 경제의 양호한 흐름 지속
군사적 충돌 장기화	군사적 충돌 장기화: 이란의 보복과 중동 내 대리전 확산	- 불확실성 이어지며 점진적 회복 전개	- 인플레 경계심에 금리 점진적 상승	- 지정학 위험 상승으로 인해 달러환율 상승	- 인플레 고착화 우려 지속 - 연준 금리 인하 시점 지연 (올해 4Q 1차례 인하 예상)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란의 지속적 위협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이동 마비	- 유가 상승으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반영	- 스태그플레이션 및 금리 인상 우려에 국채금리 상승폭 확대	- 달러화 강세 지속, 달러환율 1,500원 부근으로 상승 가능	- 고유가 고착화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심화 - 연준 금리 인하 기대 축소

자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표 2. 과거 이란과 중동에서의 유사 분쟁 당시 수익률

단기/장기	날짜	이벤트	코스피 수익률(%)			S&P500(%)		
			1D	1W	1M	1D	1W	1M
단기	1967-06-05	6일 전쟁				2.0	4.1	3.3
	1990-08-02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걸프 전쟁)	-1.4	-5.7	-11.5	-1.9	-3.3	-8.2
	2020-01-03	Soleimani IRCG 수장 사살	-1.0	1.4	-2.6	0.4	0.9	-0.3
	2024-04-14	시리아 이란 영사관 공격에 대한 보복	-0.4	-3.4	1.8	-1.2	-3.0	2.4
	2024-10-01	헤즈볼라 수장 사살에 대한 보복	-1.2	0.0	-1.4	-0.2	0.7	-0.1
	2025-06-13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내 핵시설 공습	1.8	4.4	9.7	0.9	-0.2	4.7
장기	1973-10-06	Yom-Kippur 전쟁				0.3	1.4	-3.9
	1979-01-16	1979 이란 혁명(이란 Shah의 해외 도피)				0.3	1.1	-0.7
	1990-08-02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걸프 전쟁)	-1.4	-5.7	-11.5	-1.9	-3.3	-8.2
	2003-03-20	이란-이라크 전쟁 발발	-0.8	-0.4	-1.7	-0.7	-5.3	1.2
	2001-09-11	9.11 테러	0.0	-5.5	0.4	-12.0	-10.3	-4.4
	2003-03-19	미국의 이라크 침공	4.9	2.4	15.3	0.2	-0.5	2.2
	2022-02-24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2.6	-0.6	0.4	1.5	3.8	7.5
	2023-10-07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0.6	0.4	1.3	-0.3	2.0	3.9

자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장기 시나리오: 높은 유가가 고착화되며 미국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부각

다만 이번 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트럼프가 제시한 4주 이내에 분쟁이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두가지 조건이 요구된다. 친미 성향의 정권 교체가 일어나던지 현 정권이 미국의 핵심 요구인 완전 비핵화와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중단이라는 조건을 수용하는 합의가 필요하다.

특히 정권 교체 관련해서는 불확실한 요소들이 많다. 확실한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과거 이라크 전쟁 당시처럼 미군이 이란에 진입해서 변화를 이끌어내야 하는데, 이는 공화당내 MAGA 세력을 비롯해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반대하고 있다. 과거 정권 교체를 위해 개입했던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에서는 미군이 결국 10년 이상 주둔하게 되어 영구적 전쟁(forever war)라는 오명을 얻었다. 트럼프도 지속적으로 단기간내 끝나고, 미사일과 공군력을 동원한 수단만을 강조한 이유이기도 하다. 미군의 직접적 개입을 배제한다면 이란내에서 자체적으로 시민 혁명이 일어나는 환경을 기대해야 하는데, 이는 보장된 결과가 아니다. 실제로 걸프전 당시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 시민들에게 사담 정권에 대항할 것을 촉구했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현 정권이 미국의 요구에 합의하는 경우는 조금 더 현실적이다.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으로 옮겨진 후 베네수엘라 부통령이 원유와 관련한 미국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한 것과 유사한 양상이다. 다만 미국의 요구를 모두 수용한다면 이란 정권은 앞으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수단을 상실한다고 느끼길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역시 쉽지 않은 선택일 수 있다.

이란과의 갈등이 예상보다 길어질 경우 예기치 못한 변수도 발생할 수 있다. 가능성은 적지만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한 차단이 최악의 시나리오다. 호르무즈 해협이 차단되는 상황이 전개될 경우에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본격적으로 전개될 수 있다.

매크로 지표 및 미국 주식 시장 영향

결론: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를 반영하며 단기적으로 FX시장 및 금리 변동성 장세 불가피. 다만, 11월 미국 중간선거와 트럼프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을 감안하면 전쟁 장기화에 따른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은 제한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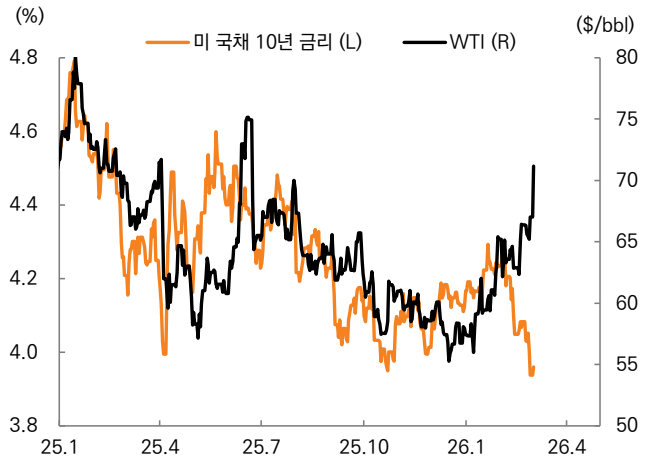
유가: 연초부터 미국-베네수엘라, 미국-이란 등 산유국을 둘러싼 지정학 리스크를 일부 반영하며 WTI는 20% 이상 급등. OPEC+의 증산 의지도 확인. 유가 상승 속도는 점차 조절 전망

달러환율: 당분간 호르무즈 해협 봉쇄 경계심, 전쟁 확전 가능성 관망,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 등에 달러환율은 상승 압력 우세할 것으로 판단

미국 매크로 환경에 미칠 영향: 인플레 고착화 우려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올해 1월 PPI 중 유통서비스 마진 항목은 도소매업체들의 마진을 반영함. 동 항목은 전월대비 2.5%로 급등. 기업의 관세 비용 전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연초 유가 상승은 PPI 상승 및 소비자 물가 상승을 추가로 견인할 전망. 식품, 에너지 제외 코어 PPI도 전월비 +0.8% 상승하며 3개월 연속 가속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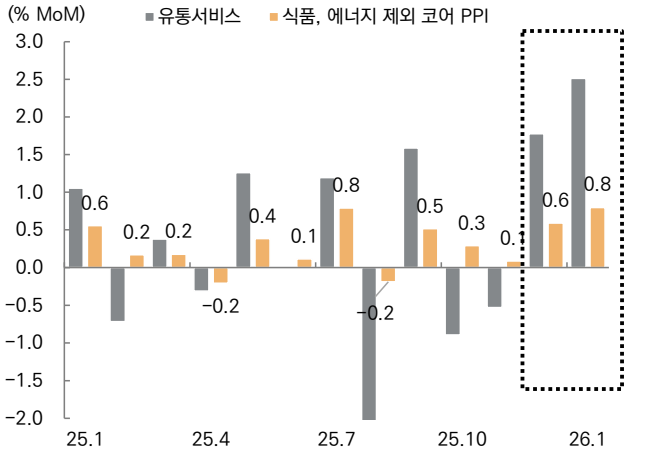
연준이 주목하는 1월 코어 PCE 인플레도 전월비 +0.3% 이상으로 가팔라질 것. 이는 작년 12월 FOMC의 연준 인플레 전망(연내 코어 PCE 인플레 전월비 +0.2%대 초반으로 상승) 경로를 상회하는 수준. 연준 금리 인하 여력 축소 전망

그림 5. 연초 이후 WTI 상승세



자료: CEIC,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6. 비용 전가하는 미국 기업들, PPI 상승폭 확대



자료: CEIC,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미 국채 금리 전망: 연준 통화정책 완화 기대 약화, 지정학 리스크 우려 서서히 완화되며 미 국채 10년 금리 반등 전망. 미 국채 듀레이션 중립 의견 유효. 지정학 리스크가 심화된 직후 미 10년 금리는 4%를 하회. 그러나 감세 등의 경기 부양책을 감안하면 미국 경제는 대체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음. 지정학 리스크로 인해 급락한 장기금리 되돌림 예상. 3월 FOMC에서 파월 의장도 최근 PPI와 슈퍼코어 서비스 인플레 상승, 유가 상승의 영향을 모니터링 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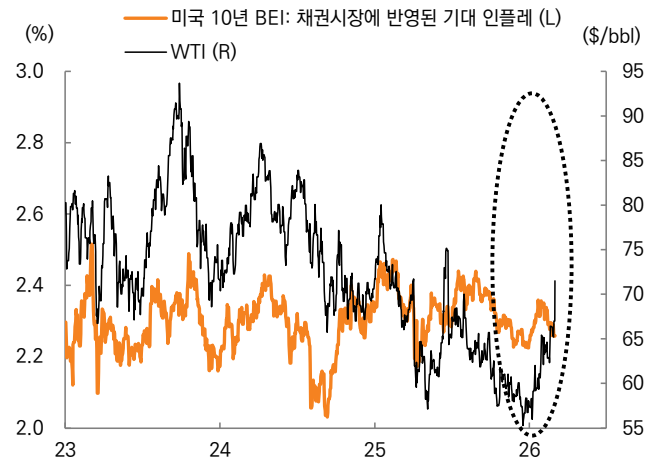
한국 금융시장 영향 및 채권 투자 전략: 1Q 한국 국채 듀레이션 중립 의견 유지.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로 인해 국고채 금리 반락 시 일부 차익실현 전략을 추천. 미국 인플레 고착화 위험, 연준 금리 인하 기대 약화, 지정학 리스크 관망세 이어지며 달러환율 변동성 지속 예상. 도비쉬한 2월 금통위에 국내 금리 큰 폭으로 하락했음. 그러나 성장률 전망 상향 조정, 반도체 수출 호조 등에 단기간 내 금리 인하 기대가 강화되기 어렵다고 판단, 국내 금리 추가 하락 여력 제한적

미국 주식 전략: 이번 이란 분쟁이 미국 시장에 단기적 변동성을 불러올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 영향은 제한적이다. 펀더멘털 관점에서 봤을 때 빅테크 기업들의 이익 증가율에 영향을 주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데다, 근본적으로 미국이 과거에 비해 원유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낮아졌기 때문이다. GDP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원유 소비량(Oil intensity)를 기준으로 보면 1970년대 당시에 비해 약 70% 이상 감소했다. 또한 과거와는 달리 미국에서 셰일가스가 생산되고 새로운 원유 공급로도 확보해 놓았다는 점도 미국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판단되는 이유다.

단기 변동성을 겪고 나면 테크 내에서는 반도체를 비롯한 빅테크 기업들의 Capex 수혜가 기대되는 전력기기, 원자력과 같은 분야에 집중하고, 테크 외 분야로는 전략 자원 테마에 관심을 유지하는 방안이 유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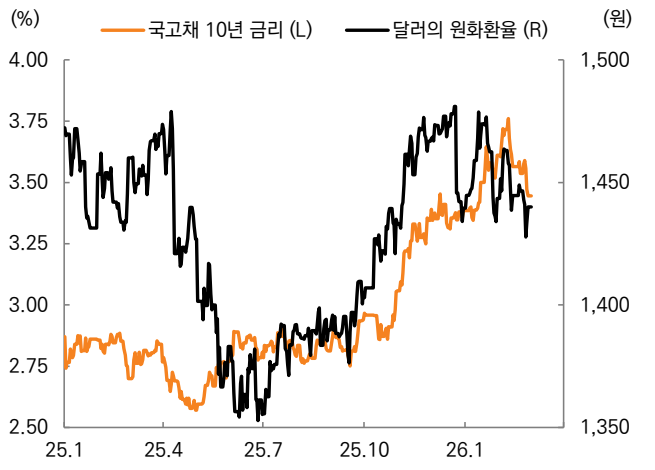
미국 시장을 위협할 수 있는 요인은 호르무즈 해협의 장기적 차질 발생으로 인해 높은 유가가 고착화되는 경우다. 이미 2~3%대에서 쉽사리 내려오지 못하는 인플레이션에 상승 압력을 더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7. 채권시장 BEI는 WTI와 비슷하게 등락



자료: CEIC,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8. 2월 후반 국내 금리 및 달러환율 하락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한국 증시 영향 및 대응 전략

단기 변동성 확대에도 한국 증시 리레이팅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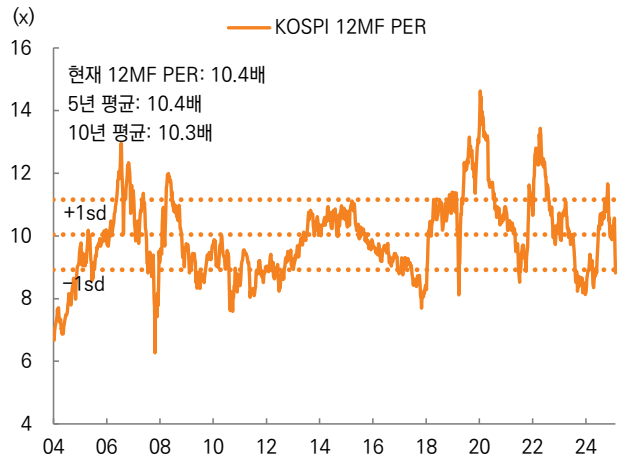
밸류에이션 부담 일시적 해소 가능성

2월 28일 미-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개시했고, 3월 1일 트럼프 대통령이 하메네이 사망을 공식 발표했다. 체제 전환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명확한 전면전이었다. 호르무즈 해협(전 세계 원유·가스 수송의 20~30%) 봉쇄 장기화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지만,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한다. 이란 군사력이 이미 상당 부분 무력화됐고, 미국의 장기전 의지도 낮으며, OPEC+ 증산 결정 등 공급 안정 요인도 있다.

다만, 테러나 분쟁이 아닌 전면전이기 때문에 금융 시장 변동성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한국 증시는 연초 이후 50% 가까이 급등하면서 쉼이 필요했던 만큼, 단기 조정 빌미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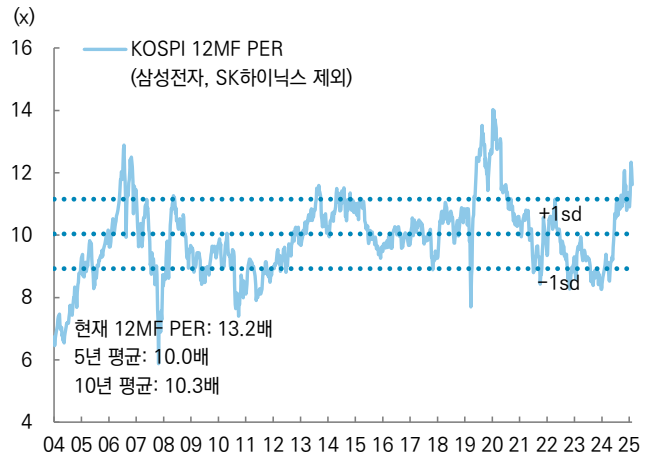
이란 리스크에 따른 단기 조정이 발생한다면, 오히려 이러한 밸류에이션 부담이 일부 해소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코스피 PBR이 2배에 근접해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아졌다고 판단했다. 코스피 PBR이 2배를 상회했던 적은 2000년 초와 2007년 말 두 차례밖에 없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제외하면 상황은 더 부담스러웠다. 12개월 선행 PER이 13.2배(+2.6표준편차)까지 상승했고, 현재 PBR은 적정 PBR 대비 30% 이상 비싸졌다.

그림 9. KOSPI 12개월 선행 P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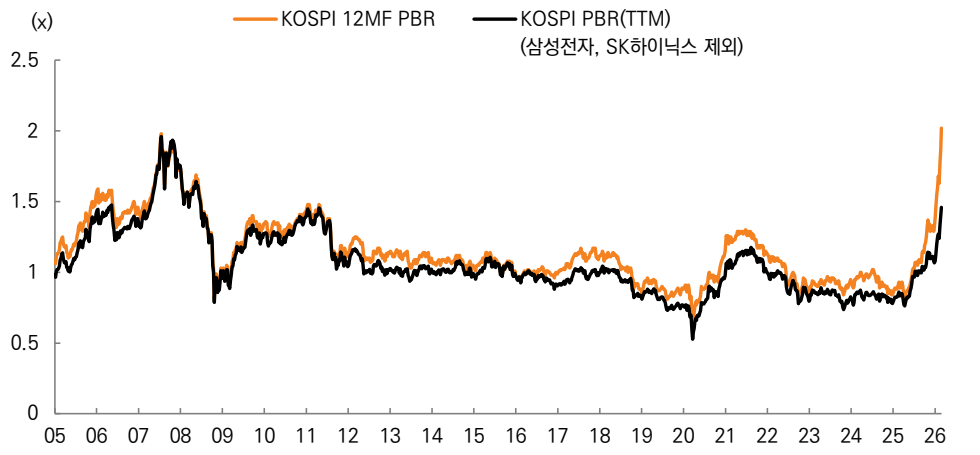
자료: FnGuide,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0.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제외 12개월 선행 PBR과 ROE



자료: FnGuide,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1. 유가 상승 국면 평균 수익률(월환산)



자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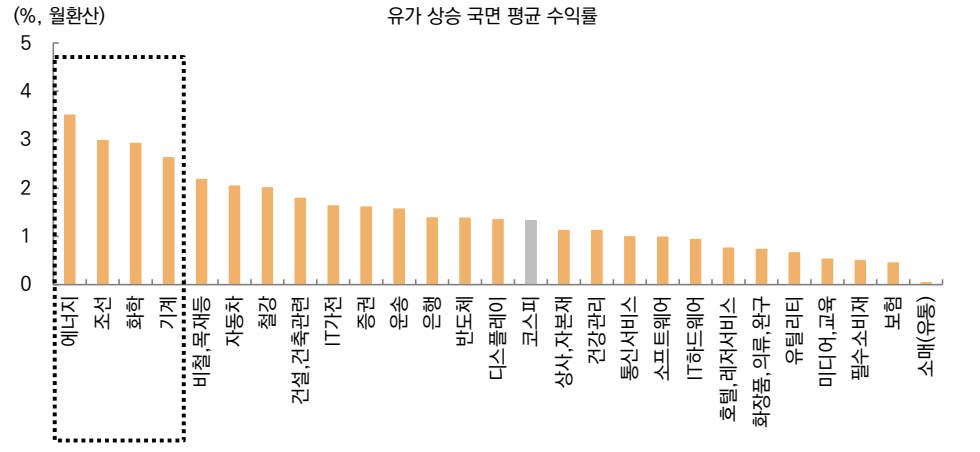
단기 대응 전략: 방어주(통신, 필수소비재 등) 보단 유가 상승 관련 업종으로

단기적으로 저베타(통신, 필수소비재, 유틸리티, 헬스케어)를 떠올릴 수 있겠지만 유가 상승 관련 업종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호르무즈 해협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기까지 유가 프리미엄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과거 유가 상승 국면(2010년 이후 8차례)에서 업종별 수익률을 분석하면 공통적인 패턴이 확인된다. 〈그림 7〉은 유가 상승 국면에서 업종별 월 평균 수익률을 나타낸 차트다. 에너지, 조선, 화학 업종의 평균 월수익률 3% 이상으로 코스피 평균 1.4% 대비 가장 높았고, 반도체, 은행은 시장 수익률과 유사했다. 주가 지수가 상승했던 국면으로 제한했을 때에도, 화학(월평균 +5.7%), 에너지(+5.1%), 기계(+4.0%), 조선(+3.8%) 업종의 주가 상승률이 더 긍정적이었다.

한편, 소매(유통), 보험, 필수소비재, 미디어, 유틸리티, 호텔/레저 등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졌을 때 전통적인 방어주로 인식되지만, 유가 상승 국면에서의 성과는 오히려 좋지 못했다. 단순한 저베타 방어보다 유가 수혜 업종으로의 전환이 유리한 선택이다.

그림 12. 유가 상승 국면 평균 수익률(월환산)



자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한국 증시 리레이팅 국면 지속

반도체 실적 개선 사이클 장기화

이번 이슈가 한국 기업들의 실적 상향 사이클의 방향성을 훼손할 가능성은 낮다. 실적 개선의 핵심인 반도체 업종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메모리 수요의 60% 이상이 데이터센터향(대부분 미국)이며, 이란 인접 지역에서 직접 조달하는 반도체 원재료도 제한적이다. 오히려 매크로 불확실성에 따른 공급자의 보수적인 설비투자 기조가 메모리 가격 유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당사 반도체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IT Set 수요 측면에서도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는 메모리 가격 급등에 따른 마진 압박으로 중저가 Set의 2026년 생산량 전망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하향 조정됐고, 가격 민감도가 높지 않은 고부가 Set 위주로 시장이 재편되면서 전쟁 발발에 의한 수요 감소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한다.

이익모멘텀 개선도 지속될 전망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컨센서스 평균값과 상단값을 감안하면 추가 상향 여력은 남아있다. 또한, 원/달러 환율 상승도 메모리 가격이 유지되는 한 실적 상향 요인이다. 분기별 반도체 이익 증가율(QoQ)은 1분기가 가장 높다. 투자 비중에 대한 고민 시점은 3월 자료에서 논의한 대로 1분기 실적 발표 전후다.

2026년 코스피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580조원(+106%YoY) 수준이다. 반도체의 낙관적인 이익 전망을 반영하면 637조원(+127%YoY)까지 높아졌다. 여전히 글로벌 시장 내에서 압도적인 이익증가율과 모멘텀이다.

머니무브는 지속

지난해 10월 이후 코스피, 코스닥에서 금융투자(ETF)의 순매수가 가팔라졌다. 주식 시장으로의 머니무브는 구조적 흐름이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러한 흐름을 되돌릴 가능성은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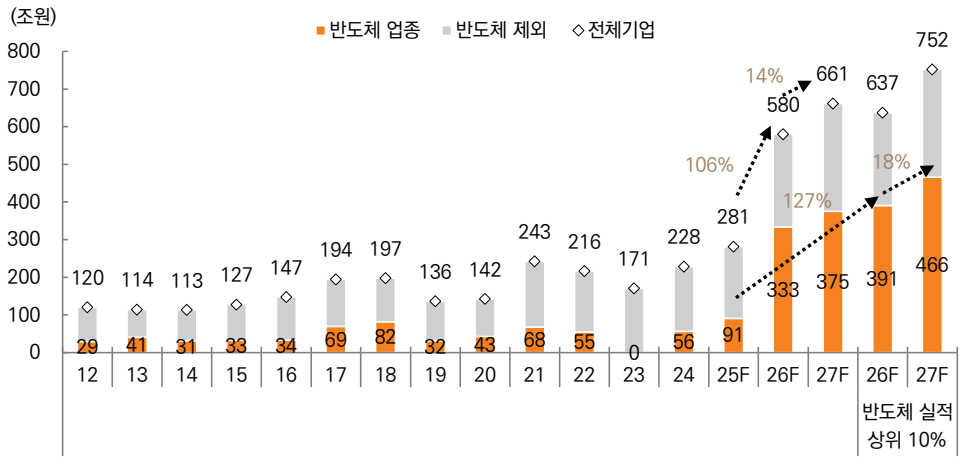
고객 예탁금도 증가 추세로 최근 110조원을 상회했다. 3월 주식전략 자료에서 언급했듯이 개인연금+퇴직연금 합산 918조원 중 원리금 보장형 비중은 72%(약 500조원)다. 퇴직연금 DB형 내 210조원, ISA 가입금액 48조원까지 합산하면 주식시장으로의 유입 여력은 크다. 올해부터 시행된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머니무브의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100조원 규모 증시 안정화 기금도 단기 안정 효과와 함께, 정책적 지원 의지를 재확인시켜주는 시그널이다.

결론: 유가 상승 관련 업종 + 반도체 중심 포트폴리오가 유리

단기적으로는 방어주보다 유가 상승 수혜 업종(에너지, 화학)의 비중 확대가 유리하다. 과거 유가 상승 국면에서 방어주(유틸리티, 호텔/레저, 음식료)의 성과는 오히려 부진했던 반면, 에너지, 화학 업종은 코스피를 크게 상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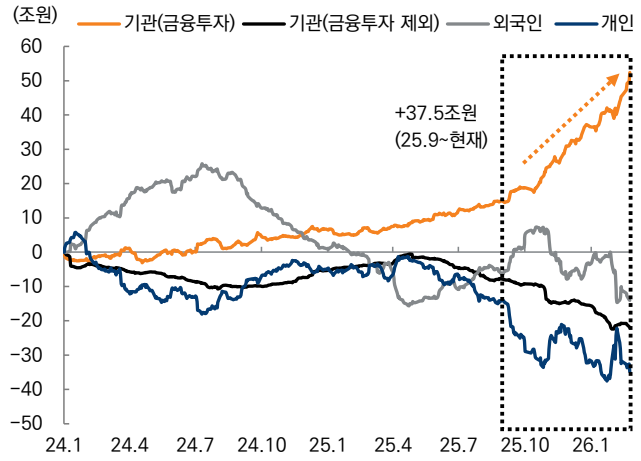
이번 지정학적 이슈로 기업들의 실적 개선과 주주환원 확대, 증시 친화적인 정부 정책, 개인들의 머니무브 등 한국 증시의 구조적 리레이팅 흐름이 바뀔 여지는 제한적이다. 단기 주가 조정이 발생한다면 밸류에이션 부담이 해소되면서 신규 진입의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 반도체, 산업재(방산/전력기기/원전), 금융(은행, 증권), 지주, 코스닥에 대한 기존 선호 의견을 유지한다.

그림 13. 코스피 연도별 영업이익: 반도체 실적 상향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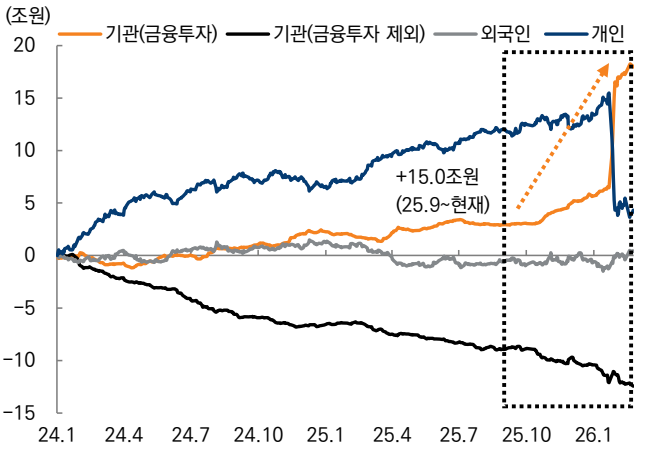
주: 컨센서스가 존재하는 코스피 247개 기업 합산.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컨센서스 상위 10% 영업이익은 각각 210조원, 180조원.
자료: FnGuide,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4. 코스피 금융투자 순매수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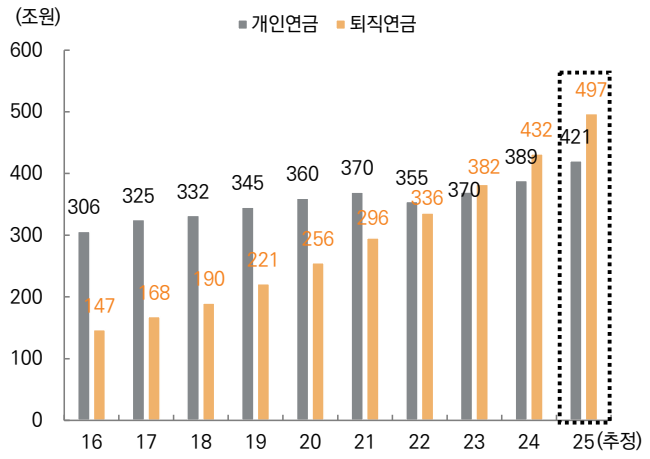
자료: FnGuide,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5. 코스닥도 마찬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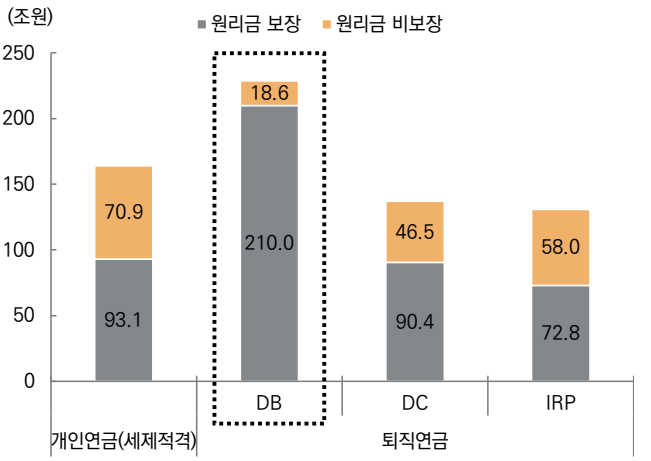
자료: FnGuide,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6. 개인연금+퇴직연금 약 918조원



주: 2025년 개인연금, 퇴직연금 추정치는 2025년말 세제적격 금액 195조원(세제적격 증가율 +8.3%) + 2024년 세제비적격 금액 208.4조원에서 +8.3% 증가를 반영
자료: 금융감독원,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 개인연금+퇴직연금 내 원리금 비보장형 28% 수준



주1: 개인연금 세제적격은 연금저축, IRP, 세제 비적격은 변액연금보험, 일반연금보험
주2: 개인연금(세제적격) 금액은 현금성 자산을 제외한 수치
자료: 금융감독원,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